

# 한국 대통령의 성격 분석: ‘중요한 5특성 판별법’(Big Five Trait Taxonomy)의 발전과 적용

함성득\*

## 〈目次〉

I. 서론	Taxonomy)
II. 대통령 성격연구의 중요성과 한계	IV. 역대 대통령의 성격 분석: BFTT의 적용
III. 중요한 5특성 판별법(Big Five Trait	V. 결론

## 〈요약〉

최근 미국 Trump 대통령의 성격이 국정운영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대되면서 대통령의 성격(personality)에 대한 연구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2017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의한 박근혜 대통령이 실패한 가장 근원적인 요인 역시 대통령의 성격에서 찾을 수 있다. 대통령의 성격은 그 이론적 중요성과 적실성이 높지만 그에 대한 조작적 정의 및 지표화가 매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대통령의 성격연구가 진지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근본 요인이다. 성격 지표에 대한 측정 방법은 이론적으로 객관성을 담보하기 쉽지 않다. 나아가 그 결과 해석에 있어서도 연구자의 자의성이 높을 수 있어 연구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박정희 대통령 이후 역대 대통령의 성격에 대한 보다 ‘직접적이고 생동적인’ 관찰과 분석을 통해서 대통령의 리더십을 이해해 보고자 한다. 여기서 직접적이고 생동적이라고 함은 해당 논문의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의 핵심인데, 이는 역대 대통령들과의 직접 대면 접촉할 수 있는 연구자에게서만 가능한 것이다. 개인 대통령들과의 직접 대화를 통한 성격 분석이 반복되는 경우 성격분석은 비교되면서 축적된다. 본 연구는 박정희 대통령 이후 역대 대통령들과의 직접 대면 접촉 경험들을 축적하여 상호 비교하면서 ‘중요한 5특성 판별법’(Big Five Trait Taxonomy)을 발전·적용하여 역대 대통령들의 리더십과 국정운영과정을 분석한다.

【주제어: 대통령, 리더십, 성격, 성격심리학】

\* 한국대통령학연구소 이사장(hahm33@hotmail.com)  
논문접수일(2018.6.27), 게재확정일(2018.7.31)

## I. 서론

대통령의 '성격'(personality) 연구는 그의 리더십(leadership)을 이해하는데 핵심 요인이다. 최근 미국의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 한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탈퇴, 북미정상회담 개최, 미중 무역전쟁 촉발 등과 같은 대외정책과 반이민정책, 세금감면, 환경규제 정책의 완화 등의 국내정책에 있어서 Trump 대통령의 성격적 특성의 영향력이 크게 증대되고 '대통령직'(the presidency)의 '개인화 경향'(the highly personalized nature)이 두드러지면서 대통령 성격연구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McAdams, 2016; Wolff, 2018; Woodward, 2018; 강준만, 2016). 우리는 1987년 민주화 이후에도 역대 대통령의 정치적 실패라는 대통령 국정운영의 위기를 끊임없이 겪고 있다. 한국정치과정을 보면 대통령의 임기 후반에 겪는 많은 어려움으로 '성공한 대통령'이 없는 것이며, 이는 단순히 '정치제도'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고 '정치문화'의 문제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 포괄적이다. 본 연구에서 대통령 '개인의 성격'이 국정운영과 리더십을 이해하는데 궁극적이고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주장하는 이유이다.

위기에 대한 진단은 '1987년 체제' 아래서 탄생한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의 제도적 문제와 개인으로서 대통령 자신의 문제로 대분된다. 우리는 2017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의한 박근혜 대통령의 실패를 보면서 현재의 대통령제를 제대로 운용할 수 있는 '좋은 사람'부터 찾아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함성득, 2017a). 우리 국민 대다수는 대통령으로서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자질, 즉 대통령의 성격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대통령 리더십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서 성격은 그 이론적 중요성과 적실성이 높지만 그에 대한 조작적 정의가 매우 어렵다는 데 있다. 또한 성격 지표에 대한 측정 방법에서도 그 객관성을 담보하기가 쉽지 않아, 결과 해석에 있어서 자의성이 높고 이론을 정립하기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격심리학'(personality psychology)을 중심으로 많은 학자는 이러한 성격의 이론적 중요성과 현실적 유용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다(Costa and McCrae, 1994; Goldberg, 1993; John, Naumann, and Soto, 2008; John and Srivastava, 1999; McAdams and de St. Aubin, 1992).

지금까지 한국의 정치·행정학계에서도 대통령 리더십의 연구와 관련 특히 성격에 대한 많은 연구(구광모, 1984; 김충남, 1992; 김충남, 2006; 김호진, 2006; 안병만, 1998; 이강로, 1993; 2010; 이종범, 1995; 정운재, 2003; 2007; 한국대통령평가위원회·한국대

통령학연구소, 2002; 한승조, 1992; 함성득·양다승, 2012 등)가 이루어졌으나 질적으로 큰 발전을 이루지는 못했다. 이러한 대통령 성격연구의 문제점에 대해 강원택(2012: 17)은 “방법론적으로 상당부분 여론조사나 전문가조사를 통해 대통령의 인기도 혹은 순위 매김식의 연구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명호(2007: 194)는 “(성격연구와 관련) 원론적, 저널리즘적 관심을 넘어서서 제도화된 평가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된 선행 연구는 연구 대상인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관찰’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즉, 대통령에 대한 언론을 포함한 단순 기록 자료와 보좌진에 의지한 간접적 관찰에만 근거한 연구는 대통령의 성격분석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점은 자연스럽게 대통령 성격연구에 대한 이론의 빈곤을 초래했고, 이론과 그 적용은 낮은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기존의 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지난 20여 년간 역대 대통령을 직접 그리고 지속적으로 대면 접촉하여 대화하면서 축적된 전문가의 경험에 기초하는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 대통령과의 직접 대면이 반복되고, 대화를 통한 경험들이 비교 축적되면서 대통령의 리더십, 특히 성격에 대해 더욱 직접적이고 생동적인 묘사, 설명 그리고 분석이 가능한 것이다. 나아가 역대 대통령들 간의 상호 비교를 통한 성격 분석이 가능하다. 본 연구는 대통령이라는 화려한 포장지 안쪽에 숨어 있는 그들의 성격을 되도록 ‘민낯’ 그대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특정 대통령 개인에서 한 걸음 물러나 ‘대통령의 역사’라는 비교·거시적 관점에서 이들 성격을 살펴보고 있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박정희 대통령 이후 우리 역대 대통령에 대해 그들의 정치적 역정과 리더십을 직접적으로 관찰한 경험에 기초하여 그들의 성격적 특성을 살펴보고 있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선행 문헌연구를 기초로 미국의 대통령 성격연구의 이론적 중요성과 그 한계를 살펴본다. 둘째, 규범적인 측면에서 성공한 대통령의 필수적인 자질을 연구한 ‘기존의 한국 대통령의 성격연구’가 갖는 이론적 중요성과 현실에서의 적실성, 그리고 한계점을 살펴보고 있다. 셋째, 대통령의 성격연구의 ‘자의성’을 줄이고 객관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성격심리학의 실증적인 분석틀로서 ‘중요한 5특성 판별법’(Big Five Trait Taxonomy, BFTT)을 수정 보완하여 발전시키고 있다. 넷째, 성격심리학의 BFTT를 이용하여 우리 역대 대통령의 성격적 특성을 분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역대 대통령 성격연구의 이론적 및 실증적 중요성과 그 한계를 기술하고 있다.

## II. 대통령 성격연구의 중요성과 한계

### 1. 대통령 성격연구의 중요성

정치·경제·사회 변화 및 발전과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정치적 상황을 포함한 ‘시대상황’(the time)과 ‘영웅’(the man) 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시대가 사람을 만드는 법이다. 영웅은 시대를 제대로 만나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 시대의 영웅 또는 지도자에 대한 리더십의 핵심적인 구성요소인 성격연구가 필요하다(George and George, 1998; Greenstein, 2009; Hargrove, 1993; McCain, 2005; Mukunda, 2012; 거젠, 2002). 정운재(2003: 478)는 “...한 국가나 조직의 흥망성쇠가 한 사람의 책임 있는 지도자에 의해 완전히 배타적으로 좌지우지된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그 한 사람의 역할은 다른 어떤 사람들의 역할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에 대해 리더십으로 접근하는 것도 정치현상을 과학적이고 적실성 있게 연구하는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주장한다.

반면 강상중(2009: 25-26)은 “리더십론은 낡고도 새로운 테마이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항상 어떤 형태로든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면 무자비한 표현 같지만, 사실 리더십론은 생각하면 할수록 알 수 없는 테마다. 왜냐하면 리더십은 ‘우연’에 좌우되기 쉽고, 과학론적으로는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바로 어제까지 지극히 평범하기만 했던 사람이 특수한 상황의 변화로 인해 갑자기 사람들에게 떠받들어져서 시대의 총아가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기는 좀 미안하지만, 본인의 능력이나 리더로서의 자질과는 전혀 상관없이 갑작스러운 기회를 맞아, 보란 듯이 그 물결을 타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그 만큼 리더십에는 명쾌하게 분석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라고 주장한다.

우리의 경우, 미국과 비교할 때 아직까지 대통령 국정운영 체제의 조직화와 제도화가 미약하고 주요 정책 결정과정에서 대통령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대통령의 성격연구가 더욱 중요하다. 실제로 Greenstein(1998)은 미국 대통령의 국정운영은 조직화 내지 제도화가 성숙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의 성공과 실패는 대통령 개인 리더십도 중요하지만 구조 및 제도적 환경의 영향력에 상대적으로 크게 좌우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진영재(2004: 370)는 한국에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성공과 실패는 사실상 그들의 리더십과 연관된 문제이지 대통령제 자체의 문제는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대통령 리더십 연구의 중심은 대통령의 성격, 즉 심리학적 특성이

어떻게 그의 국정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주목하여야 한다. 이를 '대통령학'에서는 '제도적 및 조직적 접근법'과 대비하여 '자질 중심의 개인적 및 심리적 접근법'이라고 한다(함성득, 2016: 75).

## 2. 미국의 대통령 성격연구: 이론의 발전과 한계

미국 대통령 리더십 연구에서 성격연구는 대통령직을 대통령 중심의 '단일제도 기관'으로 보며, 연구의 대상기간을 4년 내지 8년의 대통령 재임기간에 한정하는 매우 단기적 시각을 갖고 있다(Greenstein, 2009; Pika, 1982). 또한 이러한 성격연구는 점차적으로 '행태주의'로 발전하였다(자세한 것은 함성득, 2007: 44-45 참조). 이러한 행태주의의 기본적 가정은 첫째, 대통령은 자신의 성격에 기초하여 주어진 환경의 제약점들을 고려하여 정책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둘째, 주어진 환경은 늘 변화하면서 대통령의 성격 요인들이 제도적 또는 조직적 요인들의 영향력을 상쇄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행태주의 영향아래서 성격연구는 초기에는 점성술, 태어난 달의 동물, 대머리냐 아니냐 등을 기준으로 개인으로서 대통령의 성격을 분석했다.<sup>1)</sup> 그러나 이러한 분석기법은 과학성, 즉 원인-결과 분석의 연계성이 부족하여 일반적인 방법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했다.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미국 대통령의 성격분석 방법은 함성득(2007: 49-50; 함성득, 2016: 74-75)이 자세하게 설명하듯이 Barber(1972; 1992)의 개인 성격, 세계관, 행위방식에 기초한 적극-공정, 소극-부정 분석법이다. 그는 정치인들의 성격을 유형화하여 그들이 대통령이 되어서 어떻게 국정운동을 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한 분석법을 제시했다. 그의 분석은 아래의 4가지 가정이 요구된다. ①대통령의 성격이 행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②인격(character), 세계관(world view), 행위방식(style)을 포함하는 대통령의 성격은 상당히 정형화되어 있다. ③대통령의 성격은 그가 직면하고 있는 국민의 기대감을 포함한 정치적 상황과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④대통령의 인격, 세계관, 행위방식은 일반적으로 대통령의 어린 시절부터 형성되기 시작하여 그의 첫 독립적인 정치적 성공을 거둔 시기를 전후하여 완성된다. 이러한 네 가지 가정아래서 그는 대통령의 성격이 그들의 '활동 에너지'와 '정치적 직무에 대한 태도'로 표출된다고 보았다. 활동 에너지는 개인이 얼마나 활동적이고 비활동적이냐를 분석한 것이고, 정치적 직무에 대한 태도는 그가 얼마나 정치적 생활을 즐기느냐를 분석한 것이다.

1) 반면 동양에서는 생년월일을 강조하는 사주팔자, 얼굴의 생김을 관찰하는 관상, 손금을 바탕으로 하는 수상 등이 사용되고 있다.

이를 기초로 그는 먼저 역대 미국 대통령들을 ‘적극-긍정형’(active-positive), ‘적극-부정형’(active-negative), ‘소극-긍정형’(passive-positive), ‘소극-부정형’(passive-negative) 등으로 분류해 대통령의 성격적 특성과 국정운영 결과의 관련성을 분석했다.<sup>2)</sup> 중요한 것은 위의 네 가지 유형 중 어느 특정 유형이 다른 특정 유형보다 좋거나 우월하다는 것이 아니라 각 유형마다 장·단점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각 특정 유형의 장점이 발휘될 때는 대통령의 개성이 국정운영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만 단점이 노정될 때는 개성이 국정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Barber의 유형화는 단순하여 상당히 복잡한 그리고 이중적 성격을 가진 대통령을 분석하기가 어려웠다. Greenstein(1994)은 Clinton 대통령의 리더십을 분석하는 데 있어 외향적으로는 Barber의 유형화에 기초하여 적극-긍정형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내향적으로는 어느 유형에도 그를 분류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많은 학자들은 Barber의 유형화의 예측성을 부정하고, 기껏해야 그의 유형화는 대통령의 성격적 특성과 국정운영 결과와의 관련성을 이해하는 데만 도움이 될 뿐이라고 주장했다(Campbell, 1993; Pfiffner and Davidson, 1997).<sup>3)</sup>

2) 적극적 대통령은 끊임없는 활동에너지를 갖고 있으며 소극적 대통령은 Coolidge 대통령(꼭 11시간 잠을 자고, 낮잠을 즐김)처럼 근본적으로 활동에너지가 부족하다. 긍정적 대통령은 대통령직 수행에 큰 기쁨을 가지나 부정적 대통령은 대통령직 수행에 겨우 최소한의 만족을 느낀다. 구체적으로 첫째, 적극-긍정형 대통령의 장점으로는 대체적으로 성취욕이 강하고 결과(results)중심적 국정운영을 추구한다. 단점은 너무나 많은 일을 벌이고 또한 단기적 시각을 가지고 정책의 단기적 성과를 추구한다. 성공적인 대통령으로는 미국의 Jefferson, Franklin Roosevelt, Truman, Kennedy 대통령이 있고 실패한 대통령으로는 Carter 대통령이 있다. 둘째, 적극-부정형 대통령의 장점으로는 매우 야심적이며 모든 일에 치밀하게 준비하고 꼼꼼하게 집행을 통제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단점은 권력욕(power)이 너무 강하여 모든 일을 투쟁의 대상으로 본다는 것이다. 성공적 대통령으로는 미국의 Lincoln, Wilson 대통령이 있고 실패한 대통령으로는 Nixon이 있다. 셋째, 소극-긍정형 대통령의 장점은 성격이 매우 부드럽고, 다른 사람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고 협동적이어서 매우 원만한 성격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유형의 궁극적 목적은 누구에게나 비판과 원망 대신 사랑(love)과 칭찬을 받고자 한다. 그러므로 단점으로는 용기와 결단을 통해 어려운 과업을 추구하지 못하는 우유부단한 성향을 들 수 있다. 성공한 대통령으로는 Madison, Reagan 대통령이 있고 실패한 대통령으로는 Harding 대통령이 있다. 넷째, 소극-부정형 대통령의 장점은 비정치적이며 국가와 국민에 대한 사명감과 윤리의식(civic virtue)이 높다는 것이다. 단점으로는 정치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이며 정치적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며 또한 정치적 유연성이 부족하여 막연한 원칙에 집착한다는 점이다. 성공한 대통령으로는 Washington, Eisenhower 대통령이 있고 실패한 대통령으로는 Coolidge 대통령이 있다(함성득, 2016: 108-110 참조).

3) 그 외에도 Lasswell(1930)의 리더십에 대한 ‘선동가형’(agitator), ‘행정가형’(administrator), ‘이론가형’(theorist)의 분류, Hook(1943)의 ‘대세주도형’(event-making man)과 ‘대세편승형’(eventful man) 등의 분류, 그리고 Burns(1978)의 ‘거래적 리더십’(transactional leadership)과 ‘전환적 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의 분석법이 있다. 일상적 리더십은 국민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물질적 욕구를 충족시켜 줌으로써 정치적 지지를 획득하는 리더십이다. 반면 전환적 리더십은 국정운영 비

이러한 심리적 측면을 강조한 성격연구와 관련된 이론적 논쟁점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는 '보편적 및 상황적 성격의 중요성'이다. 예를 들어 Max Weber는 보편적 성격의 관점에서 시대와 상황을 초월한 성공한 지도자의 핵심적 성격으로 '정열'(Leidenschaft), '책임감'(Verantwortungsgefühl), '판단력'(Augenmass) 등을 주장했다(손혁재, 2007 참조).<sup>4)</sup> 그러나 이러한 보편적 성격연구는 대통령이 처한 시대상황에 따라 대통령의 성공에 필요한 덕목과 성격이 달라져야 한다는 상황적 성격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성공한 대통령의 리더십은 많은 경우 대통령이 처한 정치적 상황과 지도자의 리더십의 발현, 즉 '시대정신'(zeitgeist)의 구현에서 이루어졌다(Lonnstrom and Kelly, 1997; Mukunda, 2012; Simonton, 1987). 상황적 성격론에 따르면 시대가 다르면 지도자의 유형이 달라져야 한다. 즉, 요구되는 리더십의 유형과 성격도 시대가 다르면 변화되어야 한다. 대통령의 리더십이 효율적으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시대가 대통령에게 어떠한 리더십과 성격을 요구하는지를 파악하고 대통령의 역할을 새로이 정립해야 한다. 즉, 특정 시대와 상황에서 '좋은 성격'이 다른 경우에는 '나쁜 성격'으로 변화할 수 있다. 이것이 상황적 성격론의 핵심 주장이다.<sup>5)</sup>

둘째는 '특질과 환경 이론의 중요성'이다. 이는 성공한 지도자의 성격이 영웅론의 '특질이론'처럼 이미 태어날 때 갖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환경이론'처럼 후천적으로 습득되는 것인가에 대한 논의이다. 환경 이론은 크게 후천론 또는 교육론과 상황론 등으로 설명될 수 있다(자세한 것은 함성득, 2007: 45-48 참조).<sup>6)</sup>

---

전, 탁월한 도덕성 등을 통해 국민에게 큰 희망과 동기부여를 함으로써 정치적 지지를 획득하는 리더십이다. Burns는 일반적으로 전환적 지도자가 일상적 지도자보다 위대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 4) Charles Merriam은 '고도의 사회적 감수성'(a high degree of social sensitivity), '고도의 친근성'(a high degree of facility in personal contacts), '집단을 이끄는 재능'(great facility in group contacts), '극적인 표현능력'(facility of dramatic expression), '정책이나 전략을 만드는 능력'(facility in invention, whether formulas, policies, or plans), '고도의 용기'(a high degree of courage) 등을 강조한다.
- 5) 예를 들어 Nixon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 '도덕성'이 강조됨에 따라 도덕성이 뛰어난 Carter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그러나 대통령으로서 Carter는 이러한 도덕성을 모든 부분, 특히 외교정책과 관련 당시 남한과 북한, 그리고 이란 등의 관계에서 그들 나라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자신이 규정한 도덕성의 잣대로 정책을 결정함으로써 많은 문제를 초래했다.
- 6) 이를 살펴보면 첫째, 영웅론은 지도자가 이미 태어날 때부터 보통사람들과 달리 출중한 외모와 목소리, 탁월한 통솔력, 뛰어난 문제 분석력 및 업무통제력, 미래에 대한 비전 등 독특한 자질을 갖고 태어난다는 것이다. 둘째, 후천론은 본인의 노력, 교육의 영향, 경험의 결과, 즉 후천적으로 습득하게 된다는 것이다(McCain, 2015). 셋째, 상황론은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리더십이 어떤 특정 시기에 특정한 자질이 잘 결합되거나 조화되어 나타난다는 것이다.

셋째, '비이성적과 이성적 요인의 중요성'이다. 성격연구에서 지도자의 비이성적 요소 예를 들어 Sigmund Freud의 성적욕구, Carl Jung의 정신병리학적 측면 등을 분석하여 그들의 행태에 대한 '과학적 설명'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에서 성격은 억압되어 쉽게 표출되지 않고 매우 비합리적이며 잠재의식적인 내면세계의 심리적 갈등에서 비롯된다. 다만 이렇게 내면적이고 비이성적 요인에 치중하는 분석은 지도자의 가치관, 사상, 의지 등 인간행동의 이성적, 합리적 그리고 의식적 측면들을 소홀히 다루는 경향이 높다(정윤재, 2003: 50; 482).<sup>7)</sup>

그러나 이러한 심리학 측면의 성격분석은 우리보다 이론적 발전이 높은 미국에서조차 몇 가지 비판을 받고 있다. 첫째, 주로 개인적 면담, 전기(傳記), 신문기사 등에 의존하고 있는 성격분석은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자료들을 측정이 가능하도록 조작화하거나 지표화해야 하지만 그 과정이 매우 어려워 과학적 접근방법으로서 그 가치가 약하다(Campbell, 1993). 둘째, 이러한 성격분석의 결과는 그 객관화의 어려움 때문에 이론적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약하다(Pika, 1982).

### 3. 한국의 대통령 성격연구: 현황과 한계

#### 1) 주요 성격연구와 한계

개인으로서 한국의 대통령이 지닌 영향력은 미국의 대통령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더욱 크다. 따라서 대통령의 성격요인이 지닌 중요성은 절대로 간과할 수 없고 그 연구의 현실적 필요성은 더욱 높다. 지금까지 한국의 대통령 성격 연구는 Barber(1972; 1992)의 영향을 많이 받아 대통령 성격의 유형화에 치중했다. 실례로 Barber(1992)의 유형화에 맞추어 구광모(1984)는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을 적극-부정형으로, 한승조(1992)는 이승만을 '용고집형 지도자'로 박정희는 '공격적인 집념의 지도자'로, 전두환은 '저돌적이나 순진한 지도자'로, 노태우는 '신중하게 몸사리는 지도자'로 분류했다.

나아가 김호진(1997; 2006)은 이승만은 '가부장적 권위형,' 장면은 '민주적 표류형,' 박정희는 '교도적 기업가형,' 전두환은 '저돌적 해결사형,' 노태우는 '소극적 상황적응형,' 김영삼은 '승부사적 성취형,' 김대중은 '계몽적 설교형' 등으로 분류했다. 그 외에도 안병만(1998)은 박정희를 적극-긍정형으로, 이승만, 전두환, 김영삼은 적극-부정형으로, 장

7) 실제로 Burns(2006: 19)는 인간행동의 합리적이면서 의식적인 요인을 강조하며 "...가장 깊숙한 곳에서부터 비롯된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실질적이고 의도된 변화의 잠재력은 결정적으로 인간이 얼마만큼 자신의 사회적 출신과 성장 경험의 한계로부터 벗어나고, 그 운명을 통제하고 변화를 실현시키기 위해 창조적으로 행동하느냐에 달려 있다..." 라고 주장했다.



면은 소극-긍정형으로, 그리고 노태우는 소극-부정형으로 분류했다. 김종석(2006)은 Carl Jung의 정신분석심리학을 도입하여 박정희는 '내향적 사고직관형,' 김영삼은 '외향적 감정감각형,' 노무현은 '외향적 사고감각형' 등으로 분류했다.

한편 유형화에 치중한 한국 대통령 성격연구의 이론적 약점은 심각하다. 함성득(2007; 50-51; 2016: 97-98)이 주장하듯이 먼저 대통령의 통치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설령 있다 해도 그 정확성과 객관성에 의심을 갖게 되는 현실아래서 과학적 연구의 실행이 매우 어렵다. 또한 선행 성격연구는 그 조작화 또는 지표화의 과정에 어려움이 있어 실증적 접근이 부족했다. 아울러 이러한 성격연구가 이론적 틀을 기초로 한 분석이라기보다는 인물소개 형식의 신문기사 또는 주간·월간잡지 게재, 나아가 홍보용 자서전 형식이 주종을 이룰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론적 체계화 수준이 낮다 보니 상대적으로 객관적이지 못하며 설명력·타당성·일관성을 갖춘 이론을 제시하지 못했다.

## 2) 대통령에 대한 직접 비교 관찰의 중요성

대통령 리더십 연구에 있어서 그 핵심은 바로 대통령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평범한 한 인간의 성격을 파악하기도 힘든데 한 나라를 경영하는 대통령의 성격을 파악하기란 그 접근성과 객관성 등을 고려할 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작업이다. 이것이 가능해지려면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관찰해야 하고 또한 그 만남이 한 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연구 경험이 축적되어야 체계적인 분석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또한 그 성격분석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정 대통령만 직접 관찰해서도 안 된다. 연구 대상인 역대 대통령 모두를 지속적으로 직접 관찰해야 한다 (Greenstein, 2009; 거젠, 2002). 대통령의 성격은 매우 상대적이고 비교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 성격분석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교·통찰하는 것이 중요하다(Rubenzler and Raschingbauer, 2004).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는 '자의적 판단의 한계'를 기본적으로 인정하면서도 기존의 연구와 달리 박정희 대통령 이후 역대 대통령을 직접 그리고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축적한 연구경험에 기초해<sup>8)</sup> 그들의 성격을 보다 생동적으로 묘사, 설명 그리고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특정 대통령 개인의 성격에 천착하기보다는 '대통령의 역사'라는 비교·거시적 관점에서 그들 성격을 성격심리학의 BFTT에 따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후술하는 것처럼 BFTT는 대통령 성격분석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높여

8) 역대 한국 대통령과 직접적인 만남과 관찰에 대해서는 함성득(1997b; 2001; 2008; 2013; 2017a: 7-10; 2017b) 참조.

주고 결과의 자의적 해석을 줄여주기 때문이다.

### Ⅲ. 중요한 5특성 판별법(Big Five Trait Taxonomy)

#### 1. BFTT의 개발

성격분석과 관련하여 많은 심리학자는 인간의 복잡하고도 생동적인 성격을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지표로 정립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현재 성격과 관련 널리 통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지표는 성격적 유형을 포함하고 있고, 각각의 성격적 유형이 특정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떠한 경향을 보이는지를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발전되었다. 일반적으로 성격분석은 크게 두 개의 다른 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첫째는 20세기 초 분석 심리학자인 Carl Jung이 고안한 ‘심리유형론’이다. 이는 인간의 ‘외향성’과 ‘내향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즉, 대다수 사람들은 외부 세계(외향형)과 내적 세계(내향형) 중 하나의 유형에 속한다고 보고 이를 이론화한 것이다. 이는 인간에게 근본적으로 내재화되어 있는 에너지가 어디에 근거해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그는 ‘판단’(사고 혹은 감정) 기능과 ‘인식’(감각 혹은 직관) 기능을 주장했다. 그는 인간 개개인마다 각각 선호하는 인지 기능이 따로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은 그들이 선호하는 인지 기능에 자연스레 의존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각 개인이 선호하는 인지 기능은 ‘내향성’ 혹은 ‘외향성’에 따라 정의될 수 있고, 실례로 매우 내향적 기질을 가진 사람은 외향성을 띠는 사람과는 다르게 사고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러한 Jung의 이론은 1920년대에 Katharine Briggs에 의해 보다 발전되었고 그녀는 Isabel Myers와 함께 Jung의 선호 경향에 따른 ‘성격유형론’을 보다 체계화시켜 현재 널리 사용되는 ‘마이어스-브릭스 유형지표’(MBTI)를 개발했다(Myers, 1980; Myers and McCaulley, 1985).

둘째는 사람의 성격을 진단하는 척도로 사람의 성격적 ‘특성’(trait)을 강조하는 ‘성격 특성론’이다. 이는 성격에 따른 몇 개의 특성을 정의한 후 개개인의 성격에 따른 선호도를 체계화된 스케일에 맞추어 산출된 점수로 대조하는 방법이다. 이는 인간의 성격적 특성을 구분 짓기 위한 세분화된 구분점의 유무와 상관없이 어느 한 쪽의 유형으로만 귀결시켜 규정하려고 하는 심리유형론은 현실적으로 그 타당성이 높지 않다고 비판한다. 즉, 이는 인간을 구체적인 유형으로 구분하지 않고 성격적 특성과 기타 다른 특성들

사이의 상관관계 등을 연구한다.

특히 성격 특성론은 유형론에 비해 보다 방법론 측면에서 수월하고 정확한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다만 이는 성격에 대한 논의를 가능케 하는 구체적인 개념 정립이 어렵고 여전히 심리유형론의 '외향성'과 '내향성'과 같은 한정된 의미가 내포된 유형화를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람의 성격과 관련하여 보다 정확하고 자세하게 개인별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나아가 이는 왜 사람들이 그러한 행동을 하는지와 관련한 구체적인 이론 정립도 가능하게 해준다(John, Naumann, and Soto, 2008).

이러한 성격 특성론에 기초하여 McAdams(2011; 2016)와 McAdams and Pals(2006) 등은 “성격(personality)은 특징적인 성향(key dispositions), 인식 스타일(cognitive styles), 동기(motivations), 그리고 자아개념화(self-conceptions) 등으로 구성된 독특한 심리적 기질(unique psychological makeup)” 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이를 기초로 성격심리학자들은 지난 50년간의 인간에 대한 실증적인 성격 심리적 연구는 인간 심리의 그 다양한 측면을 설명한다는 점에서 과학적인 합의(a scientific consensus)에 이르렀다고 강조한다. 즉, 인간의 성격 및 속성과 관련 개개인에 대한 차이성을 판별하는 방법은 수없이 많지만, 그 동안의 실증적 연구를 통해 이론적 분석틀인 BFTT에 동의했다고 주장한다(Costa and McCrae, 1994; Goldberg, 1993; John and Srivastava, 1999; John, Naumann, and Soto, 2008). 이러한 연구들을 종합하여 McAdams(2011; 2016)는 BFTT의 외향성(Extroversion), 신경과민성(Neuroticism), 성실성(Conscientiousness), 우호성(Agreeableness), 개방성(Openness) 등 주요 5요인(factors/dimensions)과 21단면(facets)을 구성했다(〈표 1〉 〈표 2〉 참조).

## 2. BFTT의 발전

한국가이던스의 정승철·최은실은 John, Naumann, and Soto(2008)와 John and Srivastava (1999)의 BFTT, 즉 'Big Five Inventory'(5요인 30단면)를 '성격 5요인 검사'라고 칭하고 5요인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www.guidance.co.kr). 첫째, Extroversion을 '외향성'으로 규정하고 '타인과의 교제나 상호작용을 원하며 타인의 관심을 끌고자 하는 성향'이라고 주장한다. 둘째, Neuroticism을 '신경증'으로 규정하고 '일상생활에서 정서적으로 안정된 성향'이라고 주장한다. 셋째, Conscientiousness을 '성실성'으로 규정하고 '매사에 꼼꼼히 계획하고, 신중하며 책임감 있고 끈기 있게 일을 처리하며, 원칙을 고수하는 성향'이라고 주장한다. 넷째, Agreeableness을 '우호성'으로 규정하고 '이타적이

고 타인을 신뢰하며 편안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성향'이라고 주장한다. 다섯째, Openness를 '개방성'으로 규정하고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 관심이 많으며, 변화와 다양성을 좋아하는 성향'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정승철·최은실의 실제 심리적 검사는 '자아관련'과 '소통'을 더해 7요인과 25단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McAdams(2016)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BFTT의 5요인 판별법 선상의 10점 척도(1점 낮음-10점 높음)에서 중간(5점)을 중심으로 오른쪽으로 또는 왼쪽에 약간 치우치지만 대체적으로 중간에 위치한다고 설명한다.<sup>9)</sup> 지금까지 BFTT를 이용한 성격심리학의 실증적 연구에 의하면 외향성(Extroversion)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은 보다 큰 행복감과 넓은 사회적 인맥 구축과 연관성이 깊었다. 성실성(Conscientiousness)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은 대체적으로 학업과 직업면에서 성취도가 높았다. 우호성(Agreeableness)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은 대체적으로 타인과의 깊고 심도 있는 인간관계 형성에 성공했다. 반면 신경과민성(Neuroticism)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은 개인적인 불행, 원만치 못한 인간관계 형성, 정신적 질병 등과 관련이 깊었다.

또한 사람은 청소년기부터 중장년층까지는 인간관계에서 더욱 조심성이 있고 양심적이며 상냥해지는 경향이 높다. 동시에 신경과민성의 경향이 조금 줄어들면서 중장년층을 넘어서면 안정화의 경향을 띠게 된다. 그럼에도 실증적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이들 5요인은 인간의 '전생애적'(a person's lifetime) 관점에서 보면 큰 변화 없이 매우 안정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BFTT를 이용하여 심리학자들은 미국의 특정 대통령의 성격연구(McAdams, 2011; 2016)와 비교적 관점에서 역대 미국 대통령의 성격연구를 수행했다(Rubenzler and Faschingbauer, 2005).

본 연구의 대통령 성격분석은 성격심리학의 선행연구 논의에 기초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분석틀은 정승철·최은실(www.guidance.co.kr), John, Naumann, and Soto (2008), John and Srivastava (1999) 등의 연구를 참고하고 '정치인 평가'를 위해 McAdams(2011; 2016)를 따라 대통령 성격연구의 요인을 5요인으로 대분하고 있다. 5요인은 각각 4-5개 단면, 총 21단면을 지니고 있다. 먼저 <표 1>은 주요 5요인을 정의하고 <표 2>는 주요 단면들을 설명하고 있다. 다만 성격심리학자들은 이러한 요인들과 단면들에 대한 개념적 정의와 관련 문화적 또는 정서적 차이 때문에 영어로 규정된 개념을 외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는 그 의미를 이해하고 느끼는 정도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정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John, Naumann, and Soto, 2008).

9) 실제로 대단위 성격분석 판별법에서는 T점수(백분위 점수)를 사용한다. T점수는 평균이 50, 표준편차가 10인 분포를 이루는 표준 점수 체계이다.

〈표 1〉 대통령 성격의 중요한 5요인

요인	정의	주요 단면
① 외향성 (Extroversion)	타인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상호작용을 원하는 성향	사교성, 사회적 지배성, 열정, 보상추구행위
② 신경과민성 (Neuroticism)	정서적으로 우울하고 불안정한 성향	걱정, 정서적 불안정성, 우울적 경향, 부정적 감정
③ 성실성 (Conscientiousness)	꼼꼼히 계획하고 신중하며 책임감 있고 원칙을 고수하는 성향	근면성, 규율, 규칙 준수, 조직성
④ 우호성 (Agreeableness)	따뜻하고 타인을 배려하며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성향	따뜻함, 상대방 존중, 이타성, 동정심, 겸손함.
⑤ 개방성 (Openness)	세계에 관심이 많으며 새로운 변화와 다양성을 좋아하는 성향	호기심, 관습 타파, 상상력, 새로운 아이디어 수용

〈표 1〉을 조금 더 발전시키면 BFTT의 5요인 개념과 단면들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표 2〉는 이를 도식화한 것으로 5요인 및 21단면의 정의는 물론 단면의 양 극단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단면의 양 극단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것은 분석의 이해도는 물론 객관성 및 설명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표 2〉 대통령 성격의 5요인과 21단면

5요인	21단면	단면의 정의	단면 극단의 묘사
① 외향성 (Extroversion)	①-①사교성 (gregariousness)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는 성향	혼자 있기를 좋아함 ↔어울리기 좋아함
	①-②사회적 지배성 (social dominance)	자신의 주장이 강한 성향	여러 의견을 경청하고 지켜봄 ↔자신의 주장이 매우 강함
	①-③열정 (enthusiasm)	활달하고 매우 적극적인 성향	조용하고 사색적 ↔정열적이고 활동지향적
	①-④보상추구행위 (reward-seeking behavior) <sup>10)</sup>	매사에 낙관적인 성향	걱정이 많은 심사숙고형 ↔걱정이 적은 긍정형
② 신경과민성 (Neuroticism)	②-①걱정 (anxiety)	지나치게 예민하고 걱정이 많은 성향	침착하고 편안함 ↔불안하고 긴장됨
	②-②정서적 불안정성 (emotional instability)	욕구조절에 어려움이 있고 충동성이 높은 성향	신중하고 절제성이 높음 ↔충동적, 즉흥적, 다혈질
	②-③우울적 경향 (depressive tendencies)	슬픔, 낙담, 좌절 등을 쉽게 느끼는 성향	행복, 만족스러움 ↔어둡고 외로움
	②-④부정적 감정 (negative emotions)	공격성이 높고 타인의 의도를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성향	이해력이 높고 우호적임 ↔공격적이고 적대적임
③ 성실성	③-①근면성	목표 달성을 위해 열심히	유유자적하고 과정보향적

(Conscientiousness)	(industriousness)	노력하는 성향	↔목표성향적, 과업지향적
	③-②규율 (discipline)	매사에 철저히 준비하고 심사숙고 하는 성향	임기응변적 ↔신중하고 심사숙고형
	③-③규칙준수 (rule abidance)	의무와 규칙을 강하게 준수하는 성향	응통성이 높고 자유롭게 변화를 추구함 ↔엄격하고 규율적
	③-④조직성 (organization)	맡은 일을 책임감 있게 하여 믿음이 높은 성향	매우 가변성이 높음 ↔책임감이 높고 믿음이 감
④ 우호성 (Agreeableness)	④-①따뜻함 (warmth)	상대방에게 편안함을 주는 성향	냉정하고 이성적 ↔수용적이고 감성적
	④-②상대방 존중 (care for others)	상대방에게 너그럽고 협조적인 성향	자신의 입장이 중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함
	④-③이타성 (altruism)	인간의 존엄성을 최우선에 두고 희생정신이 높은 성향	가치를 위한 헌신성이 약함 ↔평등을 강조하고 헌신성이 높음
	④-④동정심 (compassion)	공감의 마음가짐이 높은 성향	원칙적이고 객관적 ↔따뜻하고 인간적
	④-⑤겸손함 (modesty)	자신을 과하게 드러내지 않으며 남을 존중하는 성향	경쟁적이고 자신을 많이 드러냄 ↔우호적이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음
⑤ 개방성 (Openness)	⑤-①호기심 (curiosity)	지적 관심이 높은 성향	일상적이고 습관적임 ↔호기심이 높음
	⑤-②관습에 얽매이지 않음 (unconventionality)	새것에 대한 두려움이 적고 진취적 성향	관습적, 보수적 ↔진취적, 모험적
	⑤-③상상력 (imagination)	새로운 생각을 잘 해내는 성향	현실적이고 실제적 ↔상상력이 높고 기발함
	⑤-④새로운 아이디어 수용성 (receptivity to new ideas)	새로운 지식과 정책에 흥미를 보이고 잘 받아들이는 성향	관례적이고 보수적 ↔감수성이 높고 독창적

〈표 2〉는 주요 성격이론에 기초한 것으로 대통령 성격연구의 자의성을 극복하고 객관성과 타당성을 높이는 과학적 이론화의 완성에 유용하다. 〈표 2〉에 기초한 체계적인 대통령 성격 분석방법은 첫째, 역대 대통령 각자가 〈표 2〉에 기초한 자아진단을 통해 자신의 성격유형을 판단할 수 있다. 이는 대통령 자신이 스스로 성격의 자화상을 그려보는 것이다. 둘째, 역대 대통령 모두를 오랫동안 여러 번에 걸쳐 직접 관찰하여 연구 대상

10) 이는 뇌과학 용어로서 도파민(dopamine), 소비, 중독 등과 깊은 관계가 있다. 도파민은 유기화합물로 동물의 중추신경계에서 발견된 신경전달 물질이다. 도파민은 음식, 섹스, 약물과 자극으로 보상의 경험에 의해 분비된다. 일반적으로 도파민은 특정한 행동을 형성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동기를 유발함으로써 즐거움과 재강화된 기분을 제공하는 뇌의 보상 시스템과 관련되어 있다(Arias-Carrion and Poppel, 2007 참조).

대통령 전원에 대한 객관적인 비교 관점을 가진 다수의 전문가가 모여서 <표 2>를 이용하여 각 대통령의 성격을 판단할 수 있다(Rubenzler and Faschingbauer, 2005). 셋째, 각 대통령과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성격 판단 결과들을 비교하고 이를 종합하여 각 대통령의 성격을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활용법과 '마이어스-브릭스 유형 지표'(MBTI)를 함께 사용하면 대통령의 성격을 더욱 잘 설명해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절차의 실행은 현실에서 매우 어렵다. 따라서 대통령의 성격에 대해 '전문가의 객관적 평가'를 실행하기 위한 첫 단계로서는 먼저 John, Naumann, and Soto(2008)가 주장하듯이 성격 요인들의 개념과 특징에 대한 조작화가 MBTI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간편한 BFTT의 <표 2>에 기초하여 대통령의 성격을 분석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또한 McAdams (2011; 2016)가 주장하듯이 대통령을 직접 관찰하지 못한 다수 전문가의 평가가 지닌 오류나 편견보다는 대통령을 직접 관찰한 소수 혹은 일인 전문가의 심층 평가가 지닌 오류나 편견이 훨씬 작을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본 연구는 역대 대통령 성격평가의 과학적 이론화의 완성을 위한 첫 시도라는 의미도 지니고 있다.

#### IV. 역대 대통령의 성격 분석: BFTT의 적용

우리의 대통령 역사를 '개인'과 '제도'라는 두 측면에서 살펴볼 때 '제왕적 대통령'(개인)과 '제왕적 대통령제'(제도)라는 두 축이 큰 의미가 있다(임동욱·함성득, 2018: 75). 제왕적 대통령제의 정점에는 제4공화국 헌법, 소위 '유신 헌법'이 있다. '87년 민주 항쟁'의 업적과 유산으로서 현재의 제6공화국 헌법은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존재하고 있으며 국회가 대통령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 반면에 대통령에게는 국회해산권조차 없다. 엄밀한 의미에서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니다(양건, 2018).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부터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등은 국정운영 과정에서 권력기간의 사유화, 막대한 정치자금, 지역적 정서, 여당 국회의원 공천권 등의 정치적 자원들을 이용 또는 남용하여 '제왕적 대통령'으로 군림했다. 반면 이러한 정치적 자원들이 미약했던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 등은 제왕적 대통령의 종언이라는 정치적 전환 과정에서 '탈제왕적 대통령'으로 인식된다(함성득, 2017a).

역대 대통령의 성격분석을 할 때는 이러한 정치적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박정희 대통령 이후 역대 대통령을 제왕적 대통령인 김영삼·김대

중 대통령과 탈제왕적 대통령인 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대통령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다. 대통령의 성격분석은 당시 정치적 상황과 유리(流離)되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정치적 상황을 제대로 녹여내야만 대통령 성격분석의 설명력이 높아진다. 같은 이유로 권력 쟁취과정에서 정치적 정통성이 미약했던 군 출신 대통령인 전두환·노태우 대통령의 성격은 비교대상으로 별도로 분석하고 있다.

### 1. BFTT에 따른 역대 대통령의 성격분석

이러한 한국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고 McAdams(2016)와 McAdams and Pals(2006)의 ‘성격은 특징적인 성향, 인식 스타일, 동기, 그리고 자아개념화 등으로 구성된 독특한 심리적 기질’이라는 주장을 기초로 박정희 대통령 이후 역대 대통령의 성격을 BFTT의 <표 2>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표 3> 참조).

<표 3> BFTT에 의한 역대 대통령 성격분석

5 요인과 21 단면		대통령		탈제왕적 대통령				군 출신 대통령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전두환	노태우
외향성	gregariousness	10	8	5	3	1	3	10	4
	social dominance	9	6	6	2	4	4	8	3
	enthusiasm	9	4	4	6	2	3	8	3
	reward-seeking behavior	9	3	3	6	2	4	8	3
신경과민	anxiety	1	6	6	4	5	2	2	8
	emotional instability	6	2	9	3	3	1	4	3
	depressive tendencies	1	2	7	3	8	2	2	4
	negative emotions	4	6	9	8	8	6	6	4
성실성	industriousness	8	8	8	10	4	6	8	6
	discipline	4	8	5	5	7	8	4	5
	rule abidance	3	6	5	2	5	8	3	4
	organization	4	6	6	5	4	8	6	10
우호성	warmth	10	6	8	6	3	4	10	8
	care for others	8	4	10	2	3	6	6	4
	altruism	5	6	8	2	3	8	1	2
	compassion	8	6	10	4	3	6	3	3
개방성	modesty	2	4	6	4	7	8	3	8
	curiosity	10	10	8	5	2	3	6	3
	unconventionality	10	6	8	6	2	3	6	3
	imagination	8	10	10	6	2	5	6	4
receptivity to new ideas	10	10	8	6	3	4	8	4	



## 2. 성격분석 방법을 둘러싼 쟁점

이렇게 '독특한 심리적 기질'과 BFTT 방법론을 기초로 역대 대통령의 성격을 분석·평가·해석할 때 객관성과 타당성, 그리고 자의성에 대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쟁점이 있을 수 있다. 첫째, '왜 어떻게 자의적으로 각 대통령의 성격을 위와 같이 판단할 수 있는가'라는 점이다. 앞서도 설명했지만 본 연구는 박정희 대통령의 이후 전두환 대통령부터 현 문재인 대통령까지를 가까이서 직접 비교 관찰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둘째, '〈표 3〉의 동일 단면에서 대통령 각각에 따라 평가 점수가 10점과 1점으로 극단인 경우가 있다. 대통령별 21단면의 평가 잣대는 무엇인가?'라는 점이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대단위 성격분석 판별법에서는 T점수/백분위 점수를 사용한다. 백분위점수는 누적 백분율을 점수화한 것으로 전체를 100명이라고 하면 한 피검자의 점수가 100명 중 아래에서 몇 번째에 있는가를 나타내주는 점수이다. 백분위 점수가 1이면 100명 중 제일 낮은 점수를, 100이면 제일 높은 점수를 받은 셈이다. 결과적으로 이는 평균이 50, 표준편차가 10인 분포를 이루는 표준 점수 체계로 전국의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비교한 점수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대통령별 21단면의 평가에서 단순히 8명뿐인 대통령 간의 상대 비교와 관련 그 정도의 차이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 점수가 극단적인 경우가 있다.

셋째, 평가결과와 관련 '특정 독자가 경험하고 관찰한 특정 대통령은 본 연구에서 규정된 그러한 성격의 카테고리에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가?'라는 점이다. 한분 또는 두서너 분의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에 기초하여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평가는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모두를 직접 관찰하고 경험하면서 대통령 모두에 대해 보다 객관적인 '비교 관점'을 갖고 분석한 것이다. 따라서 분석 결과 및 해석이 한분 또는 두서너 분의 경험에 기초한 판단과는 상이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쟁점을 고려하면서 〈표 3〉 대통령 성격분석 결과의 상대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은 보완평가를 병행하였다. 우선 역대 대통령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5명의 정치, 행정, 심리학 전공 전문가와 역대 대통령 몇 분과 인연이 깊은 2명의 여야 중진 정치인, 그리고 대통령의 건강을 담당했던 2명의 대통령 주치의에게 먼저 BFTT를 설명한 후 본 연구의 '성격 분석 결과의 해석'을 읽게 하였다. 이를 기초로 전문가들은 각각 〈표 2〉에 따라 〈표 3〉과 같은 방법으로 역대 대통령 성격 평가를 실시했다. 5요인과 21단면에 대한 평가 결과는 전문가별 평가점수에서 절대적 차이는 있었지만 상대적 차이 및 판별분석에서 〈표 3〉의 평가결과와 유의미한 차별성은 없었다. 즉,

전문가들이 역대 대통령에 대해 전반적으로 보완평가를 병행한 결과는 본 연구의 평가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 3. 성격분석 결과의 해석

#### 1) 제왕적 대통령: 김영삼·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은 좋은 환경에서 자랐고 큰 어려움 없이 정치적으로도 성장하여 늘 밝고 긍정적이다. 사람에 대한 '정(情)'이 많아서 정말로 다정다감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충돌할 때는 정반대의 성정을 보였다. 정적들에 맞서 투쟁하고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려면 때로는 지독해져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행동했다. 또한 박정희 대통령의 군부 독재아래서 민주화 투쟁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비전, 즉 '군사문화잔재 완전 청산'을 확실히 갖추었다. 아울러 그는 1983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3주년을 맞아 민주화를 요구하며 23일간 죽음을 건 단식 투쟁을 했다. 이를 통해 그는 김대중 대통령이 수십 년에 걸친 역경을 통해 얻은 역사의 중요성도 매우 짧은 시간에 터득했다. 자연스럽게 '역사에 어떻게 남을까'를 더욱 깊이 인식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그는 엄청난 내적인 끈기를 갖추게 되었다.

한편 그는 자신의 정치세력이 강해지면서 모든 것은 자신을 중심으로 움직여야 하며 자신이 주변으로 밀리는 것을 참지 못했다. 비판자들은 이러한 그를 '자기연민에 사로잡힌 독불장군'으로 묘사했다. 그는 1970년 신민당 내 대선 후보 경쟁에서 김대중에게 패배하고 1971년 대선과정에서 자신이 김대중을 지원할 때 주변으로 전략해버린 비참함을 평생 잊지 못했다. 1987년 대선에서 노태우 대통령에게 패배하고 1988년 총선에서 제1야당 대표(김대중)가 아니라 제2야당의 대표로 밀려난 것도 참을 수가 없었다. 이런 비참함과 수모감 때문에 '3당 합당'(1990)을 새로운 집권전략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자기가 믿는 것에 대해 무모할 정도로 도전했다. 그러한 무모함과 결단력이 집권 초기 하나회 척결, 공직자 재산 등록, 금융실명제 도입 등을 가능하게 했다. 또한 독불장군이지만 끊임없이 새롭고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여 중용하려는 욕구도 강했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인간적인 정과 함께 재정적 도움을 주었다. 그가 정계에 입문시켰던 사람들은 그의 가장 커다란 힘의 원천이자 정치적 유산이다. 이에 관한 한 그는 독보적이었다.<sup>11)</sup> 거젠(2002: 68)은 "(미국 현대 정치사에서) 닉슨 대통령이 발굴하여 미래의

11) 우리 정치사에 큰 획을 그은 정치인들을 살펴보면 김대중 대통령보다는 김영삼 대통령의 정치에 뿌리를 둔 사람이 훨씬 많다. 즉 '정치적 자식 농사 면'에서 김영삼 대통령은 비교 대상이 없을 정도로 수확이 크다. 이명박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 이회창, 홍준표, 김무성,

리더로서 훈련시켰던 사람들 자체보다 Nickson을 더 위대하게 만드는 요소는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그가 발굴하여 한국의 정치적 지도자로 훈련시켰던 사람들 자체보다 그를 위대하게 만드는 요소는 없다.<sup>12)</sup>

그는 집권 초기 개혁정책을 통해 국민의 지지도가 97%까지 높이 올라갔었다. 그러나 급격한 개혁정책에 의해 초래된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고자 깊은 이해와 체계적 준비 없이 조금은 무모하게(?) 추구한 세계화의 부작용과 'IMF 외환위기'로 국민의 지지도가 7%까지 추락했다(함성득, 2001). 대통령으로서 집권 초기 '성공한 개혁'을 통해 모든 것을 얻었고, 집권 후반기 IMF 외환위기로 그 모든 것을 잃었다. 그는 어떻게 크게 성공하고 또한 어떻게 쉽게 실패하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그의 성공과 실패가 그의 남다른 성격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강조한다.<sup>13)14)</sup>

김대중 대통령의 성격은 각 단마다 다른 크림이 있는 맛있는 '5단 케이크'에 비유할 수 있다. 첫째 단은 역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신이 정한 목표 달성을 위해 무서울 정도로 노력하는 성실하고 치밀한 사람이다. 그에게 성실하지 않은 사람은 용서가 안 되었다. 둘째 단은 어려운 사람들과 소외된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는 매우 따뜻하고 진보적인 정치인이다. 셋째 단은 누구보다도 재미있고 다정다감한 사람이다. 넷째 단은 절제력이 강하고 권위주의적이며 상대방을 항상 의심하는 사람이다. 마지막 단은 권력 욕구가 매우 강하고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고독한 권력 유지자이다.

그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섯 단 중 자기가 먹고 싶은 곳만을 맛보고 그를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을 갖춘 지도자로서 그의 업적들, 즉 외환위기 조기극복,

이인제, 손학규, 김문수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 12) 흥미롭게도 새로운 인재 발굴과 등용에 남보다 강한 욕구가 있었던 김대중 대통령조차 그를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역사에서 자신의 자리매김을 김영삼 대통령보다 더 중요시하고 집착했다. 그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은 자신의 주변 사람들에게 김영삼 대통령과 같은 수준의 돌봄을 펼칠 정치적 여유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 13) 이와 관련 노태우 대통령은 “김영삼의 장점은 정치에 대한 감각이 빠르다는 것이었다. 특히 기회를 포착하는 감은 가히 천재적이라고 할 수 있었다...반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사고가 결여된 것이 약점이었다. 국면을 전환하는 돌파력은 강하지만 관리와 경영에는 어두웠다.”라고 말했다(노태우, 2011: 550).
- 14) 대통령 재임 중과 퇴임 후라는 시기별로 김영삼 대통령의 성격에 대한 평은 달라진다. 시대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기본 성정이 변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김영삼 대통령은 권력의 정점을 넘어선 이후, 즉 전직 대통령으로서 '야인 생활'에 무엇을 할지를 전혀 준비하지 않았다. 그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정치적 어려움과 비참함을 심하게 겪으면서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강한 적대감을 보이기도 했다. 그의 고통을 보면서 후임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은 정권 재창출에 대한 집착이 높아졌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늘 고민했다.

지식 정보화 기반 구축,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을 찬양한다. 비판자들 역시 그들이 먹고 싶은 곳만을 맞본 후 1987년 대선 불출마 선언 번복, 1995년 정계복귀, 1999년 내각제 개헌 약속 파기 등을 들며 그를 이중적이고 거짓말쟁이라고 비판한다. 그렇지만 그는 한 단만이 아니라 5단으로 구성된 케이크이다. 이 케이크를 먹으려면 5단을 한꺼번에 먹어야 하니 입이 아주 커야 한다. 입뿐만 아니라 눈과 마음이 아주 큰 사람만이 그를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sup>15)</sup>.

그는 자신의 어렵고 파란만장했던 정치적 역경을 극적으로 꾸미려고 치밀하게 준비했다. 그를 직접 만나고 그리고 회고록을 읽으면 이러한 그의 치밀한 준비성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그가 겪어낸 정치적 역경은 흠모하는 영웅들과 자신을 동일시하게끔 만들었다. 자신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만델라, 미얀마의 아웅산 수치 등과 닮은 점이 많다고 생각했다. 그에 따르면 감옥 생활(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감옥 대학)은 평범한 정치인에게는 망각 속으로 사라질 수 있는 확실한 길이었다. 반면 만델라처럼 이를 개인적 및 정치적 성숙의 기회로 활용한다면 진정한 리더십을 체득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고 믿었다. 이러한 믿음에 기초하여 그는 정치적 시련기의 역경을 진지하게 수용함으로써 그 시간을 지적으로 깊고 폭넓은 사람으로 거듭날 기회로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그는 흠모했던 다른 위대한 정치 지도자들처럼 자신도 그 어려운 길을 걸었다는 데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대통령이 되려는 정치적 꿈과 야망을 갖는다는 것은 건강한 일이다. 그러나 이것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어야만 충족될 수 있는 굶주림, 즉 '대통령 병'으로 변질된다면 가장 건강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한다.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은 1987년 대통령 후보 단일화 실패 등에서 보듯이 대통령 당선 그 자체에 강하게 집착했고 그것이 자신들의 정치적 권위를 추락시켰다. 그렇지만 민주화 투쟁의 파란만장한 역경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형성되고 각인된 '정치적 카리스마'(political charisma)가 그들의 재임 중 정치적 추락을 조금은 막아주었다. 실제로 Mukunda(2012: 34)가 주장하는 것처럼 리더십의 '강화요소'(intensifier)로서 그들의 정치적 카리스마는 자신만의 독특한 개성을 발휘하여 합리적인 주장으로는 설득하지 못했을 사람들에게 많은 경우 확신을 심어주었다. 이런 성격이 우리 정치사에서 두 사람을 누구도 범접하기 힘든 거목으로 자리하게 만들었다.

15) 김대중 대통령의 성격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힘든 일이다. 앞서 언급한 김영삼 대통령의 성격과 대비하면서 그를 이해하면 복잡한 그의 성격의 단면을 그나마 큰 오류 없이 이해할 수 있다.

## 2) 탈제왕적 대통령: 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대통령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과 비교하여,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통령직은 긴 세월동안 모든 것을 희생하며 추구해서 획득하고, 궁극적으로 자신의 내적 만족을 얻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대권에 대한 욕심은 그들의 사회적 및 정치적 발전과 성공을 통해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었다. 대권 획득과 운용 과정에서 그들 모두는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함께 가지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다른 어떤 대통령보다도 이 두 가지 측면이 두드러지게 대조적이었다. 누가 뭐래도 그는 별종적(?) 성격의 소유자이다. 그의 성격은 진정한 '보통사람'으로서 꾸밈없는 진솔함과 솔직함으로 대표된다. 신뢰와 진정성을 강조하는 그는 정치 지도자로서 긍정적인 요소를 갖추었고 대통령으로서 '지역주의 타파'와 '국민통합'이라는 꿈을 실현할 내적 능력을 지녔다. 그렇지만 겉모습 이면에는 정반대의 측면이 감추어져 있다. 그에게는 가난한 시골에서 어렵게 성장한 환경, 즉 사회의 중심 내지 기득권이 아니라 '변방' 내지 비기득권의 환경에서 살아오면서 형성된 성격적 특성이 내재되어 있다. 그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생각하는 이 세상의 정의롭지 못함과 부조리에 대한 뜨거운 '분노의 불'이 가득했다. 또한 그는 말수는 많지만 수줍음이 많아 내성적이고 방어적이다. 그에 따라 정서적으로 불안했고 기득권과 기존 질서에 대한 분노심이 강했다.

준비된 참모진이 그의 긍정적인 면을 강화하고 부정적인 면을 완화시키기만 했다면 정치적으로 큰 성공을 일궈낼 수 있었다. 정치적으로 성공한 이후에도 그는 자신이 속하게 된 기득권층에 대해 소속감을 느끼지 못했다. 준비 되지 못한 참모진이 이러한 그에게 '코드' 라는 이름아래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은 기득권이고 적이라고 규정했다. 결국 그는 정치적 적들에게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그들에 대한 분노를 잠재우지 못했다. 종종 대통령으로서 매우 자극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그들을 공격했다(함성득, 2005). 아쉽게도 2003년 '탄핵정국'을 거치면서 그의 이러한 어두운 면을 끌어내는 것은 부족한 참모진에게 아주 쉬운 일이 되었다.

어두운 측면의 일이 너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면 대개 비극적인 운명을 맞게 된다. 그도 그렇게 되어 버렸다. 그가 깊이 연구하고 존경한 미국의 링컨 대통령도<sup>16)</sup> 그 못지않게 정치적 적들로부터 비난을 많이 받았다. 다만 링컨은 자신의 내적인 안정감을 잃지 않고 자제력이 무척이나 견고했다. 링컨은 정치적 적들로부터 늘 공격을 받았지만 정신적 수양을 통해 깨끗하게 참아냈다. 반면 그는 링컨과 달리 내적인 안정감을 갖추지 못했고 이런 성격 때문에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그렇지만 그는 진솔함과 개방성의

16)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은 링컨 대통령에 관한 책을 발간하기도 했다(노무현, 2001).

미덕을 우리 정치사에 불어넣어 희망의 불씨를 당겨 주었다. 배신과 거짓말이 난무하는 우리 정치판에서 너무나 정직한 경기를 했다. 불행하게도 그 자신은 국민통합을 원했는데 현실에서는 보수와 진보 진영의 갈등을 더욱 증폭시켜 버렸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그리움과 안타까움의 대상이다.<sup>17)</sup>

이명박 대통령은 전형적인 ‘아침형’으로서 타고난 부지런함을 지녔지만 선천적으로 내성적이고 수줍은 성격이어서 자신에 대해 유보적이거나 적대적인 사람은 극도로 경계하고 조심성이 강했다. 매우 방어적이고 자신의 약점이 노출되는 것도 극도로 꺼렸다. 그는 대통령으로서 사람을 선발할 때 일의 빠른 성취를 위해 자기가 잘 아는 사람 중에서 일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았다. 공직자로서 정치적이거나 도덕적 약점이 있어도 그것들을 무시하고 임명하려다가 많은 정치적 어려움을 겪었다. 그는 자신을 좋아해주고 지지해주었던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을 회피했다. 어린 시절에 너무나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했고 절대적인 정주영 회장 밑에서 생존하고 성공했기에 그는 본능적으로 자기를 지지해 준 사람만으로 주변을 채웠다. 결과적으로 그는 자신이 일을 같이 해보아서 능력을 잘 알고 있는 사람,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좋아했고 지지했던 사람을 특히 선호했다.

반면 그는 모든 일에 매우 낙관적인 긍정성을 지녔다. 그는 기독교인으로서 자신이 하나님이 선택한 인간이라는 것 또한 거의 확신하고 있었다. 그를 해롭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처벌할 것이고 결국 그들은 잘못될 것이라고 믿었다. 이런 성정은 어린 시절 어려움을 극복하고 매우 젊은 나이에 현대건설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던 과거의 성공에 기인한 것 같다. 또한 기업가 출신답게 이념적 가치의 중요성보다는 결과와 업적을 중시했다. 대통령으로서도 국정운영에서 실용적인 면을 매우 강조했다.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목표의식도 뚜렷했다. 또한 그는 자신이 나라와 국민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안다고 확신했다. 확신 때문에 그는 정책 추진의 과정은 경시했고 결과를 중시했다. 그에게는 과정이 어떠한 일을 성취하고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이 중요했다.

17) 이러한 노무현 대통령의 성격과 관련 김종필(『중앙일보』2015.11.18)은 “...어떤 사람들은 노무현 후보의 반미(反美)나 이념적 극단성을 염려하기도 했지만 나는 그게 큰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지 않았다. 노 대통령은 위험하다고 지적받을 정도로 자신의 사상체계를 갖추지 않았고 이념을 정교하게 연마한 인물이 아니었다. 막상 대통령이 되면 재야나 야당 시절의 구호 정치로 국가를 운영할 수 없다는 걸 저절로 알게 될 터였다...(2003년)대북송금특검법 개정협상은 그날 타결됐다. 청남대에서 오랜 시간 머물면서 나는 노 대통령에게 순진한 맛이 있음을 느꼈다. 뭐랄까, 정상에 선 사람의 독특한 면모를 보았다고 할까. 남을 편안하게 해주려는 마음 씀씀이가 인상적이었다. 자기가 잘못 생각한 게 드러나면 금세 ‘잘못했다’며 사과하고 웃어 넘겼다...” 라고 주장했다.

CEO 출신인 그는 정경유착이 만연한 정치경제 환경에서 성공했다. 그 탓인지 그는 정치를 매우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정치인을 매우 부정적으로 보며 근본적으로 혐오하고 믿지 않으며 피하려고 했다. 서울시장도 경영, 대통령도 경영하는 것이라며 쉽게 생각했다. 실례로 회고록에서도 서울시장으로서 서울시 행정에 '경영 마인드'를 도입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다(이명박, 2015: 88). 대통령직과 관련해서도 회고록의 제3장을 '통치에서 경영으로'라고 명명하였으며(이명박, 2015: 73),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국가통치가 아닌 국가경영을 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했다"라고 말했다(이명박, 2015: 516).

이러한 그에게는 공조직과 사조직의 다른 점이 보이질 않았다. 설령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알더라도 그것을 애써 무시하려고 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것을 얻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노력했다. 이와 관련 한국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직후 "현대 회장으로 있을 때 자회사가 여러 개 있었고, 내가 매우 효율적으로 운영해 보아서 큰 준비를 하지 않아도 대통령이 되어서 각 부처를 총괄하여 국가통치를 잘 할 것이니 걱정 말라"(함성득, 2012: 193)며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직접적으로 피력했다. 이러한 성정은 긍정적으로 보면 성취감이 높은 적극적인 사업가형이고 부정적으로 보면 도덕성이 약한 기업가형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부모의 비극적인 죽음이라는 엄청난 역경을 극복하고 신뢰와 원칙의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를 통해 정치인으로서 성장했다. 그는 육영수 여사가 돌아가신 후 1974년부터 1979년까지 5년 동안 퍼스트레이디 대리 자격으로 국정을 경험했다. 그는 평범한 삶을 살아본 적이 없고 어린 시절부터 또래들과 진정으로 심적 교류를 해본 적이 없었다. 어린 시절부터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성장했다. 이런 환경에서 성장한 탓에 그는 젊은 사람들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과 함께 있을 때 더욱 편안함을 느꼈다. 그에게 소통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은 익숙하지 않은 일이었다. 그 때문에 일반인에게는 상식인 사회화 과정조차 조금이 아니라 많이 부족했다. 또한 김정렴 전 비서실장이 말한 것처럼 그는 박정희 대통령처럼 역대 대통령 중 노여움과 기쁨의 표현에 있어서 그 차이가 가장 적었다(함성득, 2002a). 물론 그것이 그의 타고난 기질 때문인지 아니면 절대 권력권자인 박정희 대통령의 딸로 지내면서 후천적으로 형성된 것인지는 판단이 어렵다.

기본적으로 그는 슬픔과 애잔함을 안고 있는 매우 내성적이고 인간관계에서 매우 수동적인 사람이다. 말수도 극히 적고 누구에게도 먼저 다가가는 사람이 아니다. 누구에게 먼저 말을 잘 걸지도 않는다. 그에게는 누구에게도 쉽게 다가갈 수 없는 '정서적 방어망'

이 형성되어 있다.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견디기 힘든 비극의 역경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신중함과 성숙함의 지표로 받아들였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그의 '정치적 카리스마'로 착각했다. 아버지의 후광에 기초한 지지자들의 그러한 믿음에 의해 그는 쉽게 5선 국회의원이 됐다.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의 대표로서 거의 모든 선거에서 승리했던 '선거의 여왕'으로 군림했다.<sup>18)</sup>

그는 상대방의 말을 침착하게 경청하고 중요한 것이 있으면 다시 한 번 물어보면서 자신의 이해를 명확히 하고 기록할 정도로 꼼꼼했다. 다만 이미 자신이 밝혔거나 결정한 사항은 변경하면 안 된다는 강박 관념이 매우 강했다. 이러한 자신 만의 도그마 때문에 상대방은 답답함을 종종 느끼곤 했다. 비판자들은 이를 두고 그가 정치적 유연성이 매우 부족하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이미 오랫동안 알게 되어 믿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에 대한 접근을 허용했고 그들에 한해서만 친절했다. 그러나 그의 속마음은 누구에게도 열어 놓지 않았다. 이런 성격은 개인사의 비극을 겪으면서 많이 배신당했다는 생각이 축적되면서 형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는 모든 사람이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 자신에게 끊임없이 접근해 오는 상황에서 사람을 기본적으로 잘 믿지 않았다. 특히 기본적으로 정치인들을 믿지 않았다. 따라서 그는 몇 명의 믿는 대리인들에게 먼저 그들을 검증하게 했다. 일종의 자신보호를 위한 '사람 방패막'이었다. 그는 휴대폰조차 직접 휴대하지 않았다. 언제나 제3자인 연락관을 통해서 자신의 전화를 걸게 하고 받았다. 시간이 갈수록 그는 혼자만의 시간을 더욱 많이 가지게 되었고 '습관화된 고독'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시발점이 되었다.<sup>19)</sup>

'맑고 선한 눈망울'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점잖고 말수도 적으며 차분하고 내성적 성향이 강하다. 인간관계에서 폭을 넓히기보다는 기존의 아는 사람과의 깊이

18) 그러나 그는 2007년 8월 대통령 후보 결정을 위한 한나라당 내 경선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매우 아쉽게 패배했다. 안타깝고 쉽지 않은 상황에서 그는 경선 결과 승복 연설을 멋지게 해냈다. '경선불복'은 우리 정치사에서 사라졌고 민주주의 발전에 중요한 초석을 이루어냈다. 일반 국민에게도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이 승복으로 그는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의 그늘을 조금은 벗어나 자기만의 새로운 정치 색깔을 국민에게 보여주었다. 경선 승복은 경선패배 후에도 그를 정치적으로 생존시켰고 2012년 대선 승리의 원동력이 되었다(함성득, 2017a: 151).

19)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이 만났을 때 그 둘은 대화하기가 많이 힘들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워져 참모들이 고생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눈에 박근혜 대통령은 단지 회장 아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업적도 없이 현대그룹에서 좋은 자리를 유지하고 있던 정주영 회장의 일부 2세와 같았다. 정치적 융통성과 사회적 경험은 전혀 없이 단지 아버지의 후광 때문에 성장해서 사회가 어떻게 제대로 돌아가는지를 전혀 모르는 경험 없는 아이였다. 반대로 박근혜 대통령의 눈에 이명박 대통령은 상황에 따라 말을 자주 바꾸어 믿을 수 없는 장사꾼에 불과했다.



를 더하고자 한다. 그렇지만 그는 방어적이고 자기 속을 잘 드러내지 않으며 정치를 생리적으로 싫어하는 사람이다. 정치를 시작한 것 자체가 그의 말대로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 만들어 낸 운명이다.

그는 겸손하고 침착하게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준다. 다만 이미 자신의 생각이 정리된 사항이거나 자신이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답할 정도로 융통성이 부족하다. 그와 대화를 나눈 사람들은 그가 너무나 진지하게 자신들의 주장을 경청해서 그에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 보면 영향력은 전혀 없었던 경우가 많다. 또한 그는 상대방과 자신의 의견이 달라도 상대방을 배려해서 직접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비판자들은 이를 두고 그의 어법이 매우 애매모호하다고 한다. 또한 그가 착하고 선한 사람이지만 자신이 믿는 이념과 원칙에 너무 충실하여 정치적 포용력과 유연성이 매우 부족하다고 말한다.

그는 사람과의 만남에서 매우 수동적이지만 신중하다. 그는 절제력이 강해서 노여움도 기쁨도 강하게 표현하지 않는다. 그는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이다. 이러한 정서적 안정에는 늘 밝고 적극적인 김정숙 여사의 그에 대한 끊임없는 존경과 사랑도 큰 기여를 했을 것이다. 2012년 대선에서 아깝게 패배한 뒤에도 그는 큰 선거에서 아깝게 패배한 사람치고는 너무나 의연했다. 그는 저녁에 늦게 자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저녁형'이었다. 2012 대선에서 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하는 선거운동을 매우 힘들어 했다. 이후 정치를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대선에서 승리해야겠다는 사명감 때문에 지금은 힘들지만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 있는 '아침형'이 되었다<sup>20)</sup>.

그는 법조인 출신답게 부드럽게 업무를 처리하지만 원칙을 중시하며 공사구분도 철저히 하려고 한다. 이러한 원칙중시 때문에 종종 그는 냉정하거나 차갑게 보일 수도 있다. 비록 그가 이념적 동지애를 강조하지만 최대한 눈 질끈 감고 봐주는 인간관계가 아니라 시스템으로 정치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의 냉정함은 대통령으로서 강점이 있다. 다만 이 냉정함이 정치적 반대편을 끌어안을 수 있는 '큰 정치'라는 측면에서는 정치적 융통성과 포용력의 부족으로 나타나고 있다.<sup>21)</sup>

20) 박근혜 대통령도 내성적이고 정치를 싫어하고 저녁형이었다. 그러나 그는 대통령이 되어서도 결코 아침형이 될 수가 없었다.

21) 이와 관련 정세균 전 국회의장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과의 소통에 대해선 후한 점수를 받으실 수 있다고 보지만 야당과의 소통 노력은, 하긴 했지만 꼭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중앙일보』2018. 06.01)라고 주장했다.

## 3) 군인 대통령: 전두환·노태우 대통령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은 1979년 12·12 사태와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항쟁을 통해 정권을 쟁취하면서 그 '원죄'에 의해 정치적 정통성이 매우 미약했다. 즉, 그들은 대통령으로서 무엇을 이룩했는지와 관계없이 집권기간 동안 그리고 집권 이후에도 이 원죄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정치적 운명을 짊어졌다.

전두환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외향적이고 매사에 적극적이다. 자신의 약점을 포함해 모든 것을 솔직하게 다 드러내는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을 감출 줄 알았다. 또한 상황에 따른 빠른 판단력과 단호함, 믿고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무모하리만큼 강력한 추진력을 갖춘, 즉 호탕함 속에 감춰진 치밀함이 있었다. 그는 선천적으로 군인보다는 정치인에 더 가까운 사람이다. 이러한 그의 성격을 일찌감치 간파하고 애정을 갖고 그를 정치로 끌어들이려고 했던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이었다. 적극적인 사람은 상대적으로 신중함이 부족하다. 그는 오랜 군 조직 생활을 통해 조직의 중요성을 이해함으로써 자신에게 부족한 신중함을 보강했다.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의 죽음 이후 정치적 혼란기에 그는 자연스럽게 권력에 대한 야심이 커졌다. 12·12 사태 이후에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도 정치적으로 잔인해질 수밖에 없었다. 그는 자신의 표현에 따르면 영겁결(?)에 대통령이 되었다. 그는 “나는 원래 정치인이 아니고 군인이란 말이야. 군인으로서 그때 나라가 어렵고, 내가 대통령이 안 될 수가 없어서 한 건데, 내가 대통령이 하고 싶어서 된 건 아니오. 대통령 하고 싶으면 뭐 하러 군대 들어갔겠어요. (대통령 되려는) 계획이 전혀 요만큼도 없었어. 그렇기 때문에 약속한 대로 딱 한 번(대통령 단임) 하고 나왔잖아. 사람들은 내가 계획을 다 세워서 한 줄 아는데, 내가 그렇게 머리 좋은 사람이었다면 (대통령 자리에서) 나오지도 않았겠지.”라고 주장했다(함성득, 2017a: 177).<sup>22)</sup> 그는 자신과 동료들의 생존을 위한 과정에서 대통령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집권 초기 그는 대통령으로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 즉 정치적 비전이라는 것이 없었다. 그는 박정희 대통령의 죽음 이후 혼란기의 절대 절명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자 참모들의 '경제 안정화 정책'에 충실히(?) 따르고 그 집행에 노력했다. 그 결과로 박정희 대통령 죽음 이후 마이너스 경제성장(-2.7%)과 42.3%라는 도매물가 상승률로 대표되는 경제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했다. 그리고 그는 조금은 운(?) 좋게 1981년 박정희

22)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자주 "(12·12 때문에) 팔자에도 없는 대통령을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를 가장 가까이에서 모셨던 주변 인물들도 '전두환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의 죽음 이후 초기에는 정권쟁취 의도가 없었다'고 말했다(함성득 2017a: 177).

대통령 때부터 준비했던 '88 하계 올림픽 개최권'을 확보했고, 88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 적극적으로 임했다. 이러한 매진이 1987년 민주화 운동의 정치적 압력아래서 역설적으로(?) 그가 자랑스럽게 강조하는 한국 최초로 평화적인 단임제를 실천하게 만들었다(Cotton, 1992).

노태우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신중하고 대인관계에서 매우 조심스럽고 소극적이다. 적극적이고 조금은 공격적인 전두환 대통령은 상대적으로 부드러운 그를 좋아했다. 김영삼 대통령은 이러한 그를 우유부단하고 용기 없는 사람이라며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그를 매우 신중하고 논리적인 사람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군인 출신답게 '조직'의 중요성을 철저하게 인식했고 참모들의 체계적 분석을 통한 합리적인 정책결정 방식을 선호했다. 협상과 합의에 기초한 통치를 중시하는 그는 부드럽고 상대의 말을 경청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다.<sup>23)</sup> 특히 합의와 조정을 중시하는 그의 성격은 김대중 대통령이 추구했던 햇볕정책의 근간인 '남북기본합의서'(1991)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시간은 걸렸지만 당시 야당 지도자인 김대중 대통령과 협조에 기초하여 남남갈등 없이 남북관계에 대한 합의서를 이끌어냈다.

그는 민주화 이후 국민들의 직접 투표에 의해 선출되어 정치적 정통성의 문제에서 전두환 대통령보다는 자유로웠다. 그는 전두환 대통령의 돌봄 아래 국회의원, 장관, 집권당 대표 등을 역임했기에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준비된 대통령이었다. 그러나 1987년 민주화 운동에 대한 시대적 염원과 더불어 자신만의 정치적 꿈과 비전에 기초하여 새로운 국정방향으로 이끌기에는 그의 정치적 역량이 부족했다. 다만 그의 부드럽고 우유부단하지만 조심스러운 성격이 1987년 민주화 이후 과잉 표출된 민주화 열망의 안정적인 정착에는 기여했다.

전두환과 노태우 대통령에게는 두 사람이 가까워서 모셨던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의 전범(典範)'이었다. 그들은 군생활로부터 '조직의 지혜'를 배웠고 권한 위임과 공조직의 중요성 등을 충분히 인지했다. 그들은 박정희 대통령의 장점을 배우려고 노력했으며 주요 정책들을 계승·발전시켰다. 물론 결과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권위주의 체제와 권력의 사유화 등과 같은 문제도 지속될 수밖에 없었다.

23) 그에게 남의 말을 잘 듣는 자질이 어떻게 형성되었느냐고 물으니 웃으면서 "자신의 '귀'가 다른 사람의 귀보다 조금 컸기 때문인 것 같다"고 했다. 실제로 그의 귀는 보통 이상으로 컸다(함성득, 2011).

## V. 결론

본 연구는 성격심리학의 ‘중요한 5특성 판별법(BFTT)’에 기초하여 박정희 대통령 이후 역대 대통령 리더십의 핵심요소인 성격을 분석했다(〈표 4〉 참조). 특징적인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은 〈표 4〉에 나타난 그들 성격의 외향성과 내향성을 넘어서 민주투쟁에 헌신하는 과정에서 지도자로서 정치적 비전을 정립하였고 리더십의 강화요소로서 정치적 카리스마를 갖추게 되었다. 반면 이후의 역대 대통령은 정치적 비전을 정립할 기회를 갖지 못했고 더욱이 정치적 카리스마도 갖추지 못했다.<sup>24)</sup>

〈표 4〉 역대 대통령 성격분석 요약

5 요인	대통령	제왕적 대통령		탈제왕적 대통령			군인출신 대통령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전두환	노태우
Extroversion (외향성)		9.3	5.3	4.5	4.3	2.3	3.5	8.5	3.3
Neuroticism (신경과민성)		3.0	4.0	7.8	4.5	6.0	2.8	3.5	4.8
Conscientiousness (성실성)		4.8	7.0	6.0	5.5	5.0	7.5	5.3	6.3
Agreeableness (우호성)		6.6	5.2	8.5	3.6	3.8	6.4	4.6	5.0
Openness (개방성)		9.5	9.0	8.5	5.8	2.2	3.8	6.5	3.5

24) 예컨대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은 첫 번째 대선 도전에서 조금은 쉽게(?) 대통령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개인적으로 정치적 비전과 인격적 성숙을 위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진 적이 없었다. 즉, 그들 모두 대통령직을 통해 이루고 싶은 무엇인가에 대해 명확한 정치적 꿈이 없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에는 어떻게 권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경험도 생각도 없이 대통령에 선출되었고 그것이 안타까움이었다. 반면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을 위한 당내 경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에서 한 번씩 정치적 실패를 겪음으로써 대통령으로서 무엇을 이룩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조금은 준비되었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그 정치적 비전이 “내(박근혜) 삶의 목표는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재명, 『동아일보』2015.11.02)이라는 미래가 아닌 과거 회귀형 꿈이어서 문제였다. 그는 애잔하고 슬픈 비극적인 삶에 기인하여 긍정적인 측면의 정서적 안정성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부정적 측면의 정서적 고립이 깊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는 이런 성정 때문에 노정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 대선에서는 대통령직에 대한 준비 없이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에 대한 분노와 절망 속에서 도전했고 패배했다. 이후 2017년 대선을 준비하면서 정책과 비전을 준비했고 비로소 자신이 특히 미약했던 남북한 관계를 중심으로 한 외교안보 분야에서 햇볕정책에 기초한 일관된 비전을 갖게 되었다.

둘째, <표 4>에서 보듯이 외향성과 개방성과 관련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은 살아온 길과 이념은 전혀 다르지만 그들은 본능적으로 타인과의 관계에서 '수줍어하고 방어적이고 내성적'이라는 성격 면에서 공통점이 매우 많다. 그들은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빨리 구분할 줄 아는 능력이 뛰어났다. 그들은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마음의 문을 열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코드인사' '고소영 내각' '수첩인사' '참여연대 정부' 또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공화국' 등으로 '자신들만의 리그'를 강조하면서 정치권과의 소통과 관련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즉, 그들의 이러한 방어적이고 내성적 성향은 원만한 정치권 관계, 특히 대야관계 형성을 어렵게 만들어 대통령으로서 주요정책의 국회 법률화를 강조하는 '입법 리더십'을 약화시켰고 국정운영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셋째, 그들의 내성적 성향은 국정운영에 관한 한 부정적인 결과들을 만들어냈다.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에는 기득권에 대해 자제할 수 없었던 분노를 드러냈다.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 그를 정치적으로 매우 이기적인 대통령으로 만들었고 비판자들은 그를 철학이 없는 장사꾼이라고까지 생각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중과의 소통이 부족하고 정치적 유연성이 매우 부족한 '불통 대통령'이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과의 소통이 부족한 대통령으로 인식되고 있다.

본 연구는 대통령 성격연구를 통해 대통령으로서 그들의 성공을 가능케 한 성격의 단면과 반대로 실패를 만들어낸 단면을 찾아내고자 했다. 이는 그들 성공의 잠재적 요소를 찾아내어 발전시키고 실패의 잠재적 요인들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이다. 그들의 성공과 실패가 그들의 독특한 성격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한다. 또한 우리 국민은 성공한 대통령과 실패한 대통령의 성격에 대한 이해를 높여 대통령 선거에서 보다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Glass, 1985; Greenstein, 2009: 189).

이제는 대통령의 리더십과 그 핵심 요소인 성격에 대한 체계적이고 진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간 '흥미의 영역'이었던 대통령의 성격에 관한 논의를 '과학의 영역'으로 끌어들이야 한다. 대통령의 성격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려면 첫째, 대통령 각자가 자아진단을 통해 자신의 성격유형을 판단하여야 한다. 즉, 대통령 자신이 스스로 성격의 자화상을 그려볼 필요가 있다. 둘째, 대통령 모두를 오랫동안 여러 번에 걸쳐 직접 관찰하여 연구 대상 대통령 전원에 대한 객관적인 비교 관점을 가진 다수의 전문가가 모여서 각 대통령의 성격을 평가하여야 한다. 셋째, 각 대통령과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성격 판단 결과들을 비교하고 이를 종합하여 각 대통령의 성격을 최종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대통령의 성격연구를 실행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난관이 많다.

본 연구는 이러한 난관에 도전하는 첫 걸음이다. 아울러 이러한 시도를 기초로 MBTI와 BFTT를 이용한 다른 분야의 지도자들, 예를 들어 각 부처의 장관들 또는 기업체의 CEO들에 대한 객관적이고 타당성이 높은 성격 평가도 가능해진다. 나아가 이러한 분석법이 보다 발전하면 다가오는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 후보자들을 중심으로 MBTI와 BFTT에 의한 대통령 후보자들에 대한 객관적 성격 평가가 가능해질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장기적으로 우리는 자의성은 줄어들고 보다 객관적이고 타당성이 높은 대통령 성격분석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상중. (2009). 『반걸음만 앞서 가라』. 오근영 (역), 사계절.
- 강준만. (2016). 『도널드 트럼프』. 인물과사상사.
- 강원택. (2012). 서언: 노태우 리더십의 재평가. 강원택 (편), 『노태우 시대의 재인식』나남.
- 거젠, 데이빗. (2002). 『CEO 대통령의 7가지 리더십』서울택 (역), 스테디북.
- 구광모. (1984). 『대통령론: 지도자의 개성과 유형』고려원.
- 김종석. (2006). 대권주자 심리분석. 『신동아』 5월호.
- 김충남. (1992). 『성공한 대통령 실패한 대통령』전원.
- 김충남. (2006). 『대통령과 국가경영』서울대출판부.
- 김호진. (1997). 『한국정치체제론』박영사.
- 김호진. (2006). 『대통령과 리더십』청림출판.
- 노무현. (2001). 『노무현이 만난 링컨』학고재.
- 노태우. (2011). 『노태우 회고록(상)』조선뉴스프레스.
- 박명호. (2007). 과도기 정치의 국가통치: 토론. 한국정치학회 (편), 『한국의 대통령 리더십과 국가발전』인간사랑.
- 손혜재. (2007). 세계화 시대와 충무공의 복합 리더십. 순천향대 이순신 연구소 세미나.
- 안병만. (1998). 역대 통치자의 리더십 연구. 한국행정학회 세미나.
- 이강로. (1993). 김영삼의 지도력 유형. 『한국정치학회보』, 27(2), pp.145-164.
- 이강로. (2010).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의 지도력과 국정운영 비교: 임기 초 지도력 특성과 국민지지. 『대한정치학회보』, 18(1): 49-74.
- 이명박. (2015). 『대통령의 시간, 2008-2013』알에이치코리아.
- 이종범. (1995). 김영삼 대통령의 리더십 특성과 국정관리 유형: 문민정부 1년의 정책평가. 『한국행정학회보』28(4): 1127-1140.

- 임동욱·함성득. (2018). 잊혀진 최규하 대통령의 행정리더십. 『행정논총』, 56(1):71-91.
- 양진. (2018). 『헌법의 이름으로』사계절.
- 진영재. (2004). 성공한 대통령과 실패한 대통령: 인물론, 조직론, 그리고 국민선택론. 진영재(편), 『한국권력구조의 이해』 나남.
- 정윤재. (2003). 『정치리더십과 한국 민주주의』. 나남.
- 정윤재. (2007). 2007년 대한민국과 대통령 선거.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선정책포럼.
- 한승조. (1992). 『한국 정치의 지도자들』대정진.
- 함성득. (1997a). 대통령학의 이론적 고찰과 우리의 연구과제. 『한국행정학보』 1-22.
- 함성득. (1997b).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에게. 『월간조선』, 1월호.
- 함성득. (1998). 성공적인 대통령을 위한 국정운영 리더십. 『한국정치학회보』32(4): 391-399.
- 함성득. (2000). 한국 대통령의 업적 평가: 취임사에 나타난 정책지표와 그 성취도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34(4): 93-118.
- 함성득. (2001). 『김영삼 정부의 성공과 실패』나남.
- 함성득. (2002a). 『대통령 비서실장론』나남.
- 함성득. (2002b). 한국 대통령의 새로운 역할과 리더십: 명령자에서 조정자로. 『행정논총』 40(3): 110-122.
- 함성득. (2005). 노무현 대통령의 집권 전반기 리더십 평가. 『행정논총』 409-441.
- 함성득. (2007). 문헌고찰을 통한 한국 대통령의 자질 연구: 전망적 자질 연구의 중요성. 『정부학연구』 13(4): 41-62.
- 함성득. (2008). 대통령학 전문가가 본 이명박: 150일 간의 이유 있는 혼란. 『월간조선』6월호, 92-106.
- 함성득. (2009). 한국 대통령제의 발전과 권력구조 개편: '4년 중임 정·부통령제' 도입에 관한 소고. 『서울대학교 법학』 50(3): 203-234.
- 함성득. (2011). 역대 최고의 공약 이행도를 기록한 노 대통령. 노재봉(편), 『노태우 대통령을 말한다』 동화출판사.
- 함성득. (2012). 『대통령당선자의 성공과 실패』, 나남.
- 함성득. (2013). 박근혜 당선자에 대한 대통령학 교수의 제언: 큰 성공보다 작은 성공을 노려라! 『월간조선』 1월호, 158-169
- 함성득. (2016). 『대통령학』(제3판). 나남.
- 함성득. (2017a). 『제왕적 대통령의 종언』 섬앤섬.
- 함성득. (2017b). 문재인 대통령: 성공한 대통령을 소망하며. 『월간조선』 6월호.
- 함성득·임동욱·광승준. (2004). 한국 대통령 평가방법의 과학적 설계과정. 『한국정치학회보』 38(3): 263-284.
- 함성득·양다승(2012). 한국 대통령의 과학기술 리더십 연구: 민주화 이전과 이후의 비교론적 관점에서. 『한국정치학회보』46(1): 141-174.

한국대통령평가위원회·한국대통령학연구소. (2002). 『한국의 역대 대통령 평가』 조선일보사.  
한승조. (1992). 『한국정치의 지도자들』 대정진.

Arias-Carrion, O. and E. Popper. (2007). Dopamine, Learning, and Reward-Seeking Behavior. *Acta Neurobiol Express*, 67(4): 481-488.

Barber, James. [1972] (1992). *The Presidential Character: Predicting Performance in the White House*.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Burns, James. (1998). *Leadership*. Harper and Row.

Campbell, Colin. (1993). Political Executives and Their Officials. In Ada Finifter (ed.), *Political Science*, Washington, DC: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Costa, T. and R. McCrae. (1994). Set like plaster? Evidence for the Stability of Adult Personality. In Heatherton F. and J. Weinberger(eds.), *Can Personality Change?* 21-40.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Cotton, James. (1992). Understanding the State in South Korea: Bureaucratic-Authoritarian or State Autonomy Theory?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24(4): 512-531.

Glass, David. (1985). Evaluating Presidential Candidates: Who Focuses on Their Personal Attributes? *Public Opinion Quarterly* 49(4): 517-534.

George, Alexander and Juliette George. (1998). *Presidential Personality and Performance*. Boulder, CO: Westview.

Goldberg, L. (1993). The Structure of Phenotypic Personality Traits. *American Psychologist*, 48: 26-34.

Greenstein, Fred. (1982). *The Hidden-Hand Presidency: Eisenhower as Leader*. New York: Basic Books.

Greenstein, Fred. (1998). The Impact of Personality on the End of the Cold War: A Counterfactual Analysis. *Political Psychology* 19(1): 1-16.

Greenstein, Fred. (2009). *The Presidential Difference (3rd)*.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Hahm, Sung Deuk. (2001). Presidential Politics in South Korea: An Interim Assessment for the Kim Dae Jung Presidency and Prospects for the Next Presidential Election. *Korea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4(1): 71-86.

Hahm, Sung Deuk and Yong Hwan Choi. (2009). An Early Assessment of the Lee Myung-bak Presidency: Leadership Style and Qualities. *Korea Observer*, 40(4): 615-638.

Hahm, Sung Deuk and Uk Heo. (2018). The First Female President in South Korea: Park Geun-hye's Leadership and South Korean Democracy. *Journal of Asian and African Studies* 53(5): 649-665..



- Hahm, Sung Deuk and Kwang Woong Kim. (1999). Institutional Reforms and Democratization in Korea: The Case of Kim Young Sam Administration. *Governance*, 12(4): 479-494.
- Hahm, Sung Deuk and Dong Sung Lee. (2008). Leadership Qualities and Political Contexts: Evaluation of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in South Korea, 2003-2008. *Korea Observer*, 39(2): 181-213.
- Hahm, Sung Deuk and Chris Plein. (1995). "Institutions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in Korea: The Role of the President. *Comparative Politics*, 28(1): 55-76.
- Hahm, Sung Deuk and Chris Plein. (1997). *After Development: The Transformation of the Korean Presidency and Bureaucracy*. Washington, DC: Georgetown University Press.
- Hargrove, Erwin. (1993). Presidential Personality and Leadership Style. In George Edwards III, John Kessel, and Bert Rockman.(eds.), *Researching the Presidency*. Pittsburgh, PA: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 Hook, Sidney. (1943). *The Hero in History*. Atlantic Highlands, NJ: Humanities Press.
- John, Oliver and Sanjay Srivastava. (1999). The Big Five Trait Taxonomy: History, Measurement, and Theoretical Perspectives. In Pervin, L. and O. John.(eds.), *Handbook of Personality: Theory and Research* (2nd ed.), 102-138. New York: Guilford Press.
- John, Oliver, Laura Naumann & Christopher Soto. (2008). Paradigm Shift to the Integrative Big-Five Trait Taxonomy: History, Measurement, and Conceptual Issues. In John, Oliver, R. Robins, and L. Pervin(eds.), *Handbook of Personality: Theory and Research*, 114-158. New York, NY: Guilford Press.
- Lasswell, Harold. (1930). *Psychopathology and Politic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onnstrom, Douglas and Thomas Kelly. (1997). Rating the Presidents: A Tracking Study. *Presidential Studies Quarterly* 27(3): 591-598.
- McCain, John. (2005). *Character is Destiny*. New York: Random House.
- McAdams, Dan. (2011). *George W. Bush and the Redemptive Dream: A Psychological Portrai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McAdams, Dan. (2016). The Mind of Donald Trump. *The Atlantic*, June.
- McAdams, Dan and E. de St. Aubin. (1992). A theory of generativity and its assessment through self-report, behavioral acts, and narrative themes in autobiograph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2: 1003-1015.
- McAdams, Dan and Jennifer Pals. (2006). A New Big Five: Fundamental Principles for an Integrative Science of Personality. *American Psychologist*, 61: 204-217
- Miller, Nathan. (1998). *Star-Spangled Men: America's Ten Worst Presidents*. New York: Touchstone.
- Mukunda, Gautam. (2012). *Indispensable: When leaders really matter*. Harvard Business Review Press.

- Myers, Isabel. (1980). *Gifts Differing: Understanding Personality Type*.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 Myers, Isabel, and M. McCaulley. (1985). *Manual: A Guide to the Development and Use of the Myers-Briggs Type Indicator*.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 Pfiffner, James and Roger Davidson. (eds.). (1997). *Understanding the Presidency*, New York: Longman.
- Pika, Joseph. (1982). Moving beyond the Oval Office: Problems in Studying the Presidency. *Congress & the Presidency* 9(1): 17-36.
- Rubenzer, Steven and Thomas Raschingbauer. (2004). *Personality, Character, and Leadership In The White House: Psychologists Assess the Presidents*, Washington, DC: Potomac Books.
- Simonton, Dean. (1987). *Why Presidents Succeed*.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Wolff, Michael. (2018). *Fire and Fury*. New York: Henry Holt and Company.
- Woodward, Bob. (2018). *Fear: Trump in the White House*. New York: Simon & Schuster.

## ABSTRACT

### A Study of the Personality Traits of Korean Presidents

Sung Deuk Hahm

This paper evaluates the personality traits of Korean presidents that shaped their political leadership. The importance of personality traits of each Korean president is understood as well as significance of the traits in their political successes and failures. However, it is very difficult to measure the personality traits of Korean presidents and the significance of their traits on their leadership qualities empirically. This paper empirically analyzes the personality traits of the Korean presidents using the Big Five Trait Taxonomy (BFTT) from personality psychology in order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in the study of Korean presidential leadership.

【Keywords: Korean presidents, leadership, personality trait, personality psychology】